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- WSJ, 블룸버그 등 유료 구독지의 경우 법적 이슈 때문에 원본을 링크로 연결한 점 널리 양해 요청드립니다)
- KOCHAM은 어제 9월 23일 인근으로 이사했습니다. (새 주소지 445 Park Ave. NY NY 11102 (10th floor)

#### [미국 경제]

- CNNBusiness: 미 CFOs “관세 없다면 물가 3분의 1 줄었을 걸”
- WSJ: 파월 의장 금리 인할 후에도 “금리 정책 다소 제약적인 수준”
- WSJ: 9월 중부 아틀란타 제조 활동 크게 감소

#### [글로벌 경제]

- NYT: 관세 불확실성으로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예상

#### [주택]

- Bloomberg: 미 신규주택 판매 20% 꺾충

#### [오일]

- Bloomberg: 오일가 계속 상승세...러시아 긴장과 공급 리스크로

#### 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CNNBusiness: 구글 “테크 직원들 90%가 업무에 AI 활용”
- WSJ: 자동차 부품 AutoZone사 “관세가 고객에 여파주지 않아”

#### 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#### [미국 경제]

##### CNNBusiness: Inflation could be a third lower without tariffs, financial decision makers say

미 CFOs “관세 없다면 물가 3분의 1 줄었을 걸”

- 뉴크 대학과 리치먼드와 아틀란타 연준의 미 CFO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관세가 미 경제의 상당 부분의 물가를 부추겼다는 응답이 나왔다.
- 올해 기업들의 가격이 3분의 1은 관세 탓이라고 보고 있다. 한마디로 트럼프의 관세가 없었다면 올해 물가는 3분의 1 줄었을 것이라는 것. 구체적으로 최근 물가 2.9%가 3분의 1 낮아졌다면 연준이 목표로 한 2% 물가와 부합되는 수치라는 것이다. 이 수치는 물가 상승이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절한 목표 수치다.
- 이는 트럼프가 관세로 가격 인상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상반된 내용이다.

CNNBusiness 기사

##### WSJ: Powell Describes Rates as 'Modestly Restrictive,' Keeping Door Open to Cuts

파월 의장 금리 인할 후에도 “금리 정책 다소 제약적인 수준”

- 파월 의장은 최근 금리를 인하한 이후에 현재 금리 정책은 다소 제약적인( modestly restrictive) 수준이라고 말했다.
- 그는 그리고 관세 인상이 한차례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지만 한차례 인상이 한꺼번에 동시에 인상한다는 의미를 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. 즉, 관세 여파가 여러 분기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.
- 연준의 약간 넘는 과반수는 올해 추가로 2차례 추가 금리 인하, 즉 10월과 12월에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.

WSJ 기사

##### WSJ: U.S. Mid-Atlantic Factory Activity Declines More Severely as Fed Cuts Rates

9월 중부 아틀란타 제조 활동 크게 감소

- 9월 중부 아틀란타 제조활동이 예상외로 크게 하락했다. 관련 지수가 10 포인트 낮은 마이너스 17을 기록했다.
- 구체적으로 그 전달과 비교해 배송과 신규 주문, 고용 등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악화했다.
- 이같은 하락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꺾이지 않고 있으며 투입 비용은 크게 보아 별 변동이 없으며 판매 가격은 전월에 비해 증가했다.

WSJ 기사

### [글로벌 경제]

#### NYT: Tariff Uncertainty Expected to Slow Global Economic Growth This Year

#### 관세 불확실성으로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예상

- OECD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트럼프의 '처벌적인 성격'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무역 질서 개편으로 미국과 주요 경제 국가들이 경제 성장 둔화, 불확실성 증가, 투자와 무역 둔화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.
- 관세 효과는 미국 소비자들이 느끼기 시작해 소비를 줄이고 기업들이 근로자들은 줄이거나 추가 고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.
-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은 작년의 3.3% 상승에서 이번에 3.2% 상승을 전망했다. 이같은 예상치가 당초보다 높은 이유는 미국과 교역 국가들이 관세 시작 전에 미국에 자국 상품을 미국에 빨리 수출하기 위해 제조 활동을 늘렸기 때문이다.

NYT 기사

### [주택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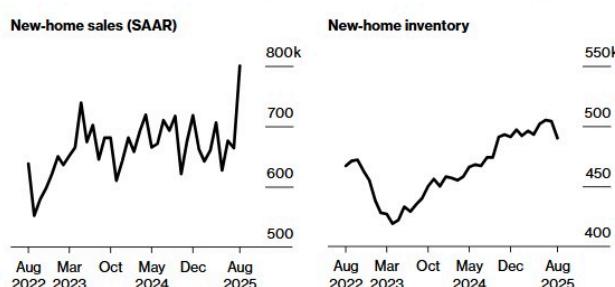
#### Bloomberg: US New-Home Sales Unexpectedly Jump

#### 미 신규주택 판매 20% 껑충

- 8월에 미 신규 주택 판매가 지난 2022년 초 이래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. 건축업자들의 가격 인하와 판촉 인센티브 때문으로 풀이된다.
- 연방 정부 관련 수요일 발표에 따르면 신규 단독 주택 판매 건수가 20.8% 늘어난 연율 80만채를 기록했다.
- 이같은 수요 증가는 주택 시장의 과잉 재고를 크게 줄였으며 8월에 신규 주택 재고는 올해 가장 낮은 49만채로 줄었다.

#### US New-Home Sales Jump Unexpectedly in August

The fastest sales pace since early 2022 helped reduce a bloated supply



Source: US Census Bureau/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

Bloomberg 기사

### [오일]

#### Bloomberg: Oil Stretches Gain as Market Tracks Russia Tensions, Supply Risk

#### 오일가 계속 상승세...러시아 긴장과 공급 리스크로

- 트럼프가 러시아에 대한 강경 발언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OPEC+의 공급 차질 가능성에 주목하는 가운데 유가는 1주일 이상 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.
-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2.1% 상승한 배럴당 64달러를 기록하고 있고, 브렌트유는 68불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.

- 트럼프는 나토 국가들에게 그들의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비행기를 격추해야 한다고 말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희망하는 입장을 펼쳤다. 그는 또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에너지 구입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.

Bloomberg 기사

### 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#### CNNBusiness: Google says 90% of tech workers are now using AI at work

구글 “테크 직원들 90%가 업무에 AI 활용”

- 구글의 최근 연구 발표에 따르면 테크 업무 직원들의 상당한 부분이 업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구체적으로 코드 작성과 수정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.
- 자사 글로벌 관련 직원 5천명의 응답에 따르면 응답자의 90%가 업무에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4% 높은 수치이다.

CNNBusiness 기사

#### WSJ: AutoZone Says Higher Prices From Tariffs Won't Keep Customers Away

자동차 부품 AutoZone사 “관세가 고객에 여파주지 않아”

- 자동차 부품과 액세서리 회사인 AutoZone은 4분기 동안에 동일 매출이 높게 나타났다.
-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가격 상승을 유도했지만 필수적인 자동차 수리를 소비자들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.
- 이 회사에 따르면 신차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신차 구입보다는 현재 보유 중인 차의 수리를 더 하는 경향이 있어 이 회사의 매출을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.

WSJ 기사

中, WTO 개도국 특혜 사실상 포기 선언..."다자무역체제 수호"

#### 기사 요약

- 중국은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사실상 특혜를 포기했다.
- 이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남용 비판을 의식한 결정으로, WTO 개혁에 대한 중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한 것이다.
- 중국은 특혜는 포기하지만 개도국 지위는 유지하며 글로벌사우스의 대표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.
-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미중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한 전략적 수순으로 보고 있으며, WTO 내 중국의 영향력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.

트럼프 "野지도부와 예산회동 안해...어떤 만남도 비생산적"

#### 기사 요약

- 미국 연방의회의 임시 예산안 처리 실패로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 커지는 가운데,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거부했다.

...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